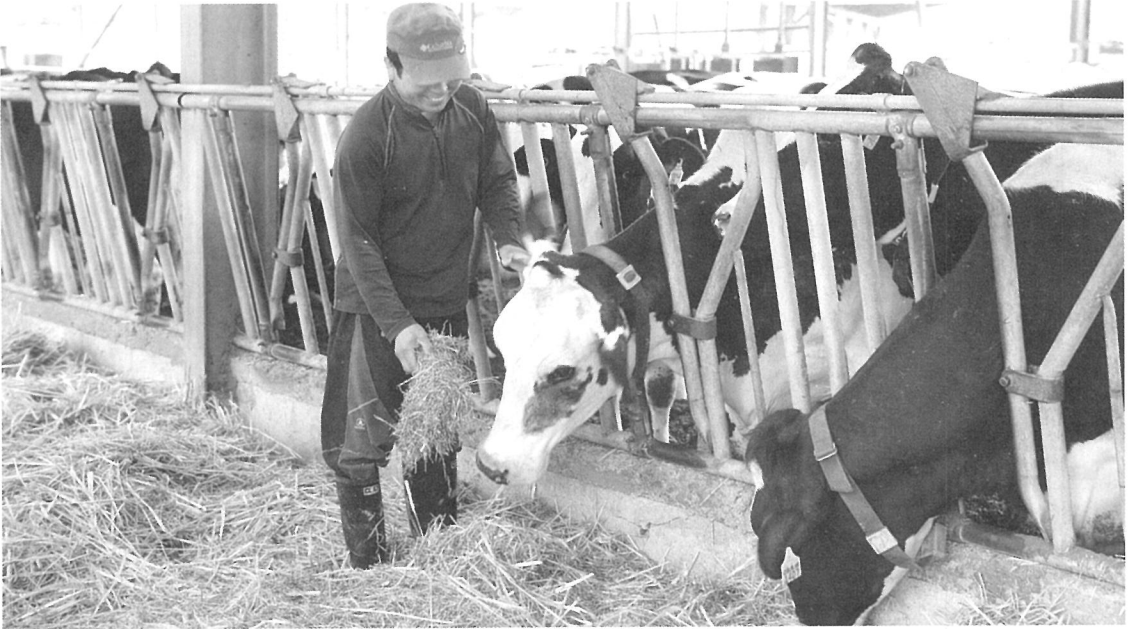


# 소외된 우리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해요

- 낙농헬퍼 인터뷰 -



Helper(헬퍼), 한국어 풀이는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이다.

사전에 나온 의미대로 우리 낙농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이 낙농현장에도 있다. 바로 “낙농헬퍼”다.

일정시간이나 기간 동안 힘든 목장 일을 대신하면서 1년 365일 목장에 발이 묶여있는 목장주의 단절된 대인관계를 회복하고, 힘든 목장 일로 망가진 몸을 회복하고 돌아와 더 나은 목장을 일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낙농산업의 역군, 낙농헬퍼.

낙농경영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어엿하게 정부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본, 독일을 비롯한 외국과는 다르게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변두리 낙농인으로서의 애환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낙농헬퍼로 일하고 있는 조씨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로 가명을 사용했음을 미리 알린다.

조씨는 전북 고창·부안에서 9년간 낙농헬퍼로 일하고 있다. 유통업에 몸담고 있던 조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가족인공수정사가 헬퍼로 일 해볼 것을 권하면서 낙농업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조씨는 보통 새벽 4시경 집에서 출발해 8시쯤 오전 작업(착유, 사료급여)을 마치고 퇴근했다가 오후 3시경에 다시 출근해서 저녁 8~9시쯤이면 오후 작업이 끝난다. 일평균 9시간을 목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나면 헬퍼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 달 중 헬퍼로 일하는 기간은 최소 21일로, 추가로 요청이 있을 때는 25일까지 일하기도 한다. 조씨의 월수입은 2백만 원 초반에서 많게는 3백만 원대이다.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조씨는 “몇 년 전까지는 헬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못 느꼈지만,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조금 빠듯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낙농헬퍼 외에도 부업으로 축사 개·보수 작업, 축사시설 설비 및 수리 등을 해서 살림에 보태고 있다.

## 4대보험 적용 제외, 농업인보험으로는 미흡해

고창·부안지역에서는 낙농가 30명이 자체적으로 고창낙농헬퍼협의회(이하 헬퍼협의회)를 구성해, 조씨를 포함한 4명의 헬퍼와 촉탁계약을 맺고

있다. 헬퍼협의회에서는 헬퍼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월 최저 이용횟수를 21일로 정했다. 헬퍼이용료는 착유우 30두를 기준으로 하루 20만원, 2인 1조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 30두 이상의 목장은 착유두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된다. 헬퍼이용 기본금액인 20만원의 25%(5만원)는 고창군 낙농헬퍼지원사업 예산(3천만원/년)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낙농가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헬퍼협의회와 헬퍼는 사실상 고용·피고용 관계이지만, 헬퍼협의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헬퍼들이 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낙농헬퍼지원사업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다.

헬퍼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매월 6만원씩 헬퍼들의 개인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씨는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도 가입했다.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사회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적고 보장기간도 1년에 불과해 아쉬움이 있다.

보통 낙농헬퍼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든다. 즉, 헬퍼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한 근로일수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낙농가들의 수요가 부족하거나, 한여름

처럼 낙농가들의 이용신청이 몰리는 특정시기에는 오히려 헬퍼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다. 고창낙농헬퍼협의회와 일하는 헬퍼들의 근로조건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지만, 목장주들이 친인척 관혼상제나 여타 이유로 헬퍼를 이용하는 것처럼 헬퍼들도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일을 쉬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장 일을 우선해야 하고, 정기휴일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실제로 조씨도 가족행사와 헬퍼 일이 겹쳐 어쩔 수 없이 가족행사에는 불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원유 폐기시 책임 인정하나, 일방적 처리비용 부담스러워

조씨는 본인을 비롯한 고창·부안지역 헬퍼들은 낙농가들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말한다. 헬퍼협의회에서는 헬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고 있고, 헬퍼들은 낙농가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 하기 때문이다. 유대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해도 10년 가까이 낙농현장에서 헬퍼로 일하면서 아쉬운 점이 없는지 물어봤다.

조씨는 항생제 치료 중인 젖소의 원유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납유했을 경우 해당 집유차의 원유 폐기비용 전액을 헬퍼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했다. 물론 목장주들이 일을 맡길 때 구

분착유를 해야 하는 젖소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하지만, 일이 서툴렀던 시절에는 여러 번 실수를 경험하긴 했고 여전히 심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제가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져야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평소에 허물없이 지내던 목장주였어도 돈 문제가 생기면 섭섭하고 일시적으로 서먹서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목표를 물어봤다.

“예전에는 내 이름으로 된 낙농목장을 꿈꿨지만, 신규 낙농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마음을 접었죠. 그래도 오랜 시간동안 낙농현장에서 배운 게 있으니 축종은 달라도 작게나마 농장을 시작해보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죠.”

흔히 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크게 묶어 “OO인”으로 표현한다. 젖소와 함께 숨 쉬고 낙농업에 종사하면서 낙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 낙농헬퍼도 어엿한 낙농인이다. 낙농헬퍼를 단순 보조인력이 아닌 기술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대하는 인식전환과 함께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낙농현장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대한민국 낙농산업의 숨은 일꾼 낙농헬퍼, 그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취재 및 정리 : 본회 교육홍보부〉